

한글장편소설의 아동 서사와 애착 관계 연구*

-〈엄씨효문청행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

고은임**

- I. 머리말
- II. 아동의 갈등과 애착
- III. 아동 서사의 의의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아동의 애착과 성장과정을 살펴 그것이 작품 안팎으로 갖는 의의를 탐구한 논의이다. 15세 이하 나이를 아동으로 범주화하였고, 아동의 삶이 비교적 자세히 소묘되고 성장과정의 문제적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작품 〈엄씨효문청행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을 주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엄씨효문청행록〉의 엄영은 계후 갈등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적장자로 만들기 위해 계후자 엄창을 해치려는 친모로 인해 심각한 내적, 외적 갈등을 겪는다. 그는 친모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형 엄창을 도우며 우애와 가문의 평화를 지향하는데, 그것은 영유아기 때부터 엄창과 강한 애착이 형성됐기 때문이었다. 한편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에는 부모의 폭력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의 삶이 잘 그려져 있다. 〈유효공선행록〉 유연의 서사는 특히 문제적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811)

**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육부 시간강사

인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친에게 극심한 학대를 당하며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되고, 자신의 불안정 애착을 아들에게 대물림한다. 한편 <보은 기우록>의 위연청 역시 부친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데, 그는 부정적 아버지를 극복하고 이상적 성인이 된다. 이처럼 두 인물이 유사한 학대를 겪었음에도 성장 후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인 것은 그들이 어린 시절 다른 애착을 경험한 것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유연과 달리 아동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위연청은 비교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했고, 그렇게 단단해진 그의 내력(內力)은 부친의 가혹한 학대에도 그를 버티게 한 것이다. 이러한 아동 서사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기까지 애착이 작용하는 지점과, 아이와 긍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주된 인물은 부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문헌기록을 참고해보면 실제로도 상층 가문에서는 아이 양육 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여전히 전통적 어머니상을 소환하며 친모의 존재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통념을 재고하게 한다. 한편 확대가족으로 이뤄진 가문 내 다양한 구성원의 존재는, 가장이 가족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조선시대 가부장제 구조에서 아동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생각된다. 수직적 질서가 강고할수록 그것을 견제할 다채로운 애착이 형성될 때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바, 한글장편소설에 그런 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핵심어: 엄씨효문청행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한글장편소설, 아동, 애착, 아동학대

1. 머리말

아동이 근대에 이르러 발견되었다는 주장은 새삼스럽지 않다. 아이는 17세기 비로소 조명되었다거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아동’은 극히 최근에 형성되었다는 등, ‘아동의 발견’이라는 화두는¹⁾ 한국의 아동기 관련 연

구에도 큰 영향을 끼친바,²⁾ 대다수 연구에서 20세기 초를 한국 ‘아동의 탄생기’로 간주해 왔다.³⁾ 전통사회 아동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터이나 그 이전의 “아이는 일종의 익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⁴⁾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전통사회 아동기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조선은 예교를 중시한 사회였던 만큼 사대부들은 유교적 교양 함양을 위해 아동 교육에 많은 공을 들였다. 아동을 일반적으로 ‘학령(學齡)’을 의미하는 단어 ‘동몽(童蒙)’이라 부른 데서 알 수 있듯, 조선사회 아동에 대한 관심은 학습의 문제에 집중되었고,⁵⁾ 그 결과 조선시대에는 공격, 사적으로 아동 교육과 관련된 문헌이 풍부하게 간행, 생산되었다.

그러나 학습자로서의 아동이 아니라 개별 인격체로서 아동의 모습, 아동의 생활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간혹 조선의 문인들은 생동하는 아이의 모습을 포착하거나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양아록>(養兒錄), <미암일기>(眉巖日記)와 같은 문헌이나 혹은 요절 한 아들, 딸을 위해 쓴 제문, 묘지명 등에서 아동의 삶이 발견되기도 한다.⁶⁾ 하지만 이와 같은 자료는 단편적이고 소략한데다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 1)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조르주 뒤비 외, 김기림 역, 『사생활의 역사』 5, 새물결, 2006;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 2) 김혜경,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논문, 1998; 김현철,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9; 백혜리, 『한국에서의 아동관 연구 동향과 과제』, 『교수논총』 18, 2003.
- 3) 1900년대 최남선의 『소년』에서 아동문학의 기원을 찾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근대적 아동 인식은 1920년대 방정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대립하고 있으나, 어느 주장이든 20세기 초 근대적 출판물에서부터 아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소명출판, 2009, 11~35면.
- 4) 필립 아리에스, 앞의 책, 34면.
- 5) 심경호, 『전근대 시기의 아동관과 아동의 문학』, 『창비어린이』 5(4), 창작과비평사, 2007, 207면.
- 6) 강혜선, 『조선후기 여성 대상 제문과 묘지명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국문학회』 13, 국문학연구, 2005; 김세서리아, 『17세기 조선 유학의 미시 서사를 통한 가족 인식』, 『유교사상문화연구』 57, 한국유교학회, 2014; 문혜경, 『이문건 <양아록(養兒錄)>에 나타난 격대교육(隔代教育)의 교육적 의미』, 제주대 박사논문, 2018; 박상영,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망아초기제문>(亡兒初墓祭文) 연구(研究)』, 『한문학논집』 41, 근역한문학회, 2015; 백혜리,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7; 백혜리, 『목재일기에 나타난 조선 중기 아동의 생활』, 『유아교육연구』 24, 한국유아교육학회, 2004; 윤경희, 『유인김씨 제문연구』, 『동양고전연구』 40, 동양고전학회, 2010; 조은숙, 『양아록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4.

작자 개인, 그리고 성인의 그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실로 전통사회 아동의 삶과 그 내면을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아동 문학이 부재했고 아동기에 자신의 삶과 내면을 기록한 문헌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장편소설을 주목해볼 만하다. 소설은 향유 시기 향유층의 관습과 통념, 일상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텍스트이고, 특히 가문의 이야기가 거질의 장편분량에 담겨 인물 개개인의 서사가 대폭 확장된 한글장편소설에는 사회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소외되었던 '아동'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중, 단편소설에서 아동이 개별자로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서사를 갖지 못하거나, 영웅소설 주인공의 비범성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대체되는 것과 달리 한글장편소설에는 어른과는 다른 아이들의 세계가 직조되어 있는 것이다.⁷⁾

이 점이 주목되어 일찍이 한길연, 김수연에 의해 아동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도출된 바 있다.⁸⁾ 한길연은 다수의 한글장편소설을 박람하여 소설 속 아동의 서사문법적 역할,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논점을 제출하여 소설 속 아동 연구의 선편을 잡았고, 김수연은 가족과 분리되어 유랑하고 행걸하는 아동 서사를 주목하였다. 한편 아동 양육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주체적 삶을 우선하며 아이를 방기하는 여성 형상에 대한 논의, <범문정충절언행록>에 등장한 유모의 대리모성 역할에 대한 논의, <쌍천기봉>에 나타난 다채로운 양육 양상에 대한 논의 등도 있다.⁹⁾

7) 한길연, 「대하소설 속 '아동'의 서사문법적 역할과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43면.

8) 한길연, 위의 논문; 한길연, 『생활문화사적 측면에서 본 대하소설 속 '아동'의 형상화와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김수연, 『조선후기 고소설 속 '아동 서사'의 문학적 장면과 사회적 의미—<창선감의록>과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9) 이지라,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테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최수현, 「<범문정충절언행록>의 유모 '일업'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7(1),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줄고, 「<쌍천기봉>에 나타난 양육 양상과 그 의미」, 『동서인문학』 61,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

아동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논의도 상당수 제출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해 참고한 연구를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모의 성격과 의미」,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상(上), 집문당, 1998; 이은경,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어머니의 양상과 의미」, 『개신어문연구』 21, 개신어문학회, 2004;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글장편소설의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애착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아동기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오늘날의 서사만큼 성장 과정이 전면적이며 상세하게 전개된 고전 작품은 드물지만 서사의 편폭이 넓은 한글장편소설 가운데는 아동의 삶, 특히 어린 시절 갈등과 애착의 문제적 국면이 의미 있게 전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엄씨효문청행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이 그러한데, 이 작품들에는 인물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이 비교적 소상히 나타나 있고, 애착의 영향 관계가 잘 그려져 있다.¹⁰⁾

논의를 위해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애착 관계의 중요성을 주목한 ‘애착이론’을 참고한다. ‘애착’은 부모나 특수한 사람과 연결된 정서적 고리의 형성, 수정, 상실 그리고 이 과정에 수반되는 정서인바, 애착이론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는 인간의 경향성을 개념화하고, 애착대상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않을 때 수반되는 불안, 분노, 우울, 정서적 초연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고통과 성격장애를 설명한다.¹¹⁾ 아동이 건강하게

- 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김서윤, 『<엄씨효문청행록>의 모자 관계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홍현성, 『<보은기우록> 속 아버지 모습과 문제적 부성의 의미』, 『돈암어문학』 32, 돈암어문학회, 2017;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잘못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9, 국어국문학회, 2019;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2)-<육원재합기연>을 통해 본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3)-잘못한 부모에 대응하는 자식의 태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2, 한국고소설학회, 2021.
- 10) <엄씨효문청행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에 집중하여 본격적 논의를 전개하는 가운데 그 밖에 아동 형상이 다채롭게 등장하는 <소현성록>, <쌍천기봉>, <명행정의록>, <명주기봉> 등의 작품도 참고하기로 한다. 각 작품의 선본으로 알려진 텍스트를 논의대상으로 삼고, 인용시에는 작품명과 면수만 기입한다.
-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제본 30권 30책 (최길용 교주, 『엄씨효문청행록』 1·2, 학교방, 2016), <유효공선행록> 서울대본 12권 12책(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5·16, 아세아문화사, 1980), <보은기우록> 한중연본 18권 18책(이화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보은기우록』 상·하, 이화여대출판부, 1975), <소현성록> 이대본 15권 15책(정선희 외 역, 『소현성록』 1~4, 소명출판, 2010), <쌍천기봉> 한중연본 18권 18책(장시광 역, 『팔씨의 인연 쌍천기봉』 1~9, 이담, 2017), <명행정의록> 한중연본 70권 70책(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명행정의록』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명주기봉> 24권 24책(문화재관리국, 『명주기봉』 상·하, 1978)
- 11) ‘애착’은 존 볼비(John Bowlby)가 제기한 이론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발달심리학, 응용심리학, 정신건강 분야 등 인간의 성장과 내면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

발달하려면 양육자는 양질의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이 자라는 사회적 환경이 정서적으로 안전해야 하는바, 특히 영유아기 초기발달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전체 미성숙기의 애착은 인간의 성격 형성,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진다.¹²⁾ 본고에서 살펴볼 작품에는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인물들의 성격, 정서 발달에 있어 그들이 맺는 애착 관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양상과 의미를 살피는 것은 인물과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아동 범주는 대체로 15세까지의 연령으로 한정해 논의되어 왔다.¹³⁾ 조선의 문헌기록에 따르면 대체로 15세 이후가 되면 사회적으로 성인의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5세 무렵 관례를 하고 16세부터는 호패를 착용하고 부역(賦役)을 담당하며 형법상으로 성인의 법 적용을 받았던바,¹⁴⁾ 15세 이하 연령대는 아직 법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가르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고 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관념이 소설에도 반영되어 소설 인물들 역시 대체로 15세 전후하여 혼례를 하고 과거

진다. 개념에 대한 설명은 마리오 마론의 『애착이론과 심리치료』(이민희 역, 시그마프레스, 2007, 31~99면.)에서 요약 제시한다.

- 12) 인간의 삶에서 애착관계는 성장기뿐 아니라 전 생애 걸쳐 중요하다. 볼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밀한 애착은 한 인간의 삶이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는 걷기 이전의 유아나 걸음마를 댄 유아일 때뿐만 아니라 사춘기와 성년기를 거쳐 노년기까지 지속된다.”고 하였다. John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 1980, p.442. (테이비드 J. 윌린, 김진숙 외 역, 『애착과 심리치료』, 학지사, 2020, 31면에서 재인용.)
- 13) 한길연, 앞의 논문(2013), 43~45면; 한길연, 앞의 논문(2014), 273~276; 김수연, 위의 논문, 9~13면.
- 14) 박미선, 『조선전기 ‘아동’의 사회적 인식-아동범죄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3~13면; 최혜진, 『조선중기 사족의 아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 -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16~18면.
- 15) 문헌자료마다 아동을 시기별로 다시 세분하여 다른 명칭으로 부른 사례가 발견된다. 이를 테면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태어나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영아(嬰兒)’, 3세 아이를 ‘소아(小兒)’, 10세 아이를 ‘동자(童子)라 하였고,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는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영아(嬰兒)’, 3세를 ‘소아(小兒)’, 10세를 ‘동자(童子)’, 15세를 ‘성동(成童)이라 하기도 했지만, 한 살에서 다섯 살까지를 ‘영해(嬰孩)’, 7세 이하를 ‘유자(孺子)’, 10세 이하를 ‘초춘(髫髻)’, 14세 이하를 ‘동관(童卯)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문헌마다 세부적 구분이 다르지만 대체로 15세를 아이와 성인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최혜진, 위의 논문, 13~15면.

에 응시함으로써 성인의 삶에 들어선다.¹⁶⁾ 그런데 다시 10세를 전후하여 아이의 놀이가 금지되고 학업에 전념할 것이 요구되며 어른의 자세를 익히도록 교육되는 등, 그 이전과는 다르게 어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 ‘준성인’의 시기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10세를 기준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단계, 마치 오늘날의 청소년기와 비슷한 시기가 상정되어 있는 것이다. <소현성록>의 소운성은 10세 때 자신의 앵혈을 없애며, <쌍천기봉>의 이연성과 이관성도 10세 전후하여 여종들과 관계하는 등, 소설에서도 때때로 10세를 전후하여 성인의 세계에 들어서는 조숙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면서 인물의 15세 이하 시기를 주목하고, 아동기의 갈등과 애착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 인물의 성장 과정과 내면에 접근하고 아동 서사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아동의 갈등과 애착

1. 부모 욕망에 의한 갈등과 애착 형성

고전소설에는 계후갈등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조선후기 종법제와 입후제가 보편화되면서 적통이 단절되었을 때 혈통 위주로 대를 이을 것인지 종통 위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런 현상이 소설에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창선감의록>과 같은 작품에는 다처제 하의 여러 아들 가운데 적장자 지위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 <성현공숙열기>, <엄씨효문청행록>, <완월회맹연> 등에는 입양자와 친생자 간의 계후자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다. 이러한 서사에서는 가장의 입후 결정에 반발하며 친생자를 적장자로 만들려는 욕망에 추동되는 모성이 위험한 것으로 다뤄지는데, 부계 혈연 중심의 가문질서 안에서 친아들에 대한 사랑을 한껏 펼칠 수 없었던 당대 여성의 현실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¹⁸⁾

16) 김수연은 문헌자료와 <창선감의록>의 인물 성장 단계를 비교하여 그 유사성을 살피는 가운데 소설에서도 15세 혼례할 때까지를 ‘동해(童孩)’로 부른 지점을 주목했다. 김수연, 앞의 논문, 12면.

17) 이에 대해서는 한길연, 앞의 논문(2014, 274~276면.)에 자세하다.

계후갈등 서사에서 가장의 뜻과 다르게 자신의 친생자를 적장자로 만들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은 대개 악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그 아들은 어머니 뜻에 동조하며 가권을 차지하기 위해 악행에 동참하거나, 반대로 그러한 갈등을 괴로워하며 계후자를 돕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어머니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며 외적갈등에 치중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 욕망에는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내적갈등을 겪으며 고통스럽게 성장한다. <엄씨효문청행록>의 엄영이 바로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엄영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애착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태사 엄백진은 최씨와 혼인하여 딸만 셋을 낳고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셋째 동생 동오왕 엄백경이 둘째 아들을 낳자 입후하여 적장자를 삼겠다고 한다. 엄백경과 그 부인 장후는 최씨가 어질지 않다는 점을 염려하지만 가문의 대사(大事)이기에 큰 형 뜻에 따르고, 최씨 역시 내키지 않지만 40이다 되도록 득남하지 못한 처지이기에 반대하지 못한다. 이에 엄백진은 아이 이름을 ‘창’이라 짓고 입양하여 양육하게 된다. 그런데 6년여 뒤 최씨가 아들 엄영을 낳게 되고, 최씨는 “영이 당당한 엄시 종손이어늘, 나기를 늦게 하여 즈가의 농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급히 서도라 창을 양조하여 영아로 무용지인이 되를 직골분원”한다.¹⁹⁾

엄백경은 아들 엄창을 형에게 입후한 뒤 동오국에 떠나 있다가, 몇 년 뒤 돌아와 조카를 보게 되니 기뻐하며 창을 데려가겠노라 말한다. 그러나 엄백진은 “창아는 오문의 중탁이라, 심지 삼칠일이 겨유 지난 후 우형이 계후하여 숙질의 정을 씨 부즈의 친을 미즈니, 임의 (...) 디시 명정언순흐미 미쳤”다며²⁰⁾ 단호히 거절한다. 엄백경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차후 계후갈등의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지만 정작 가장인 엄백진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일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의 결정에 누구도 반발하지 못하고, 최씨는 내심 “영아는 무용으로 밀위를 보고 대로절치”하여²¹⁾ 엄창을 없애고 자신의 아들을 적장자로 만들겠노라 결심하여 악행을 시작한다.

18) 이에 대해서는 박영희, 앞의 논문.

19) <엄씨효문청행록> 3권 40면.

20) <엄씨효문청행록> 4권 7~8면.

21) <엄씨효문청행록> 4권 11면.

최씨는 겉으로는 엄창을 귀애하지만 시비들의 도움을 받아 은밀하게 각종 흉계를 꾸민다. 요예지물(妖穢之物)을 엄창의 처소에 매장해 저주하거나, 계부모를 해하려 했다면 강상지죄(綱常之罪)로 모함해 사형에 처하게 하고, 자객을 사 살인을 청부하기도 한다. 더욱이 엄창이 혼인한 후에는 그의 부인 윤월화에게도 음부(淫婦)의 누명을 씌워 유배 보내고 역시 살인을 청부한다. 그러나 엄창 부부를 죽이려는 최씨의 계략은 번번이 실패한다. 신이한 힘이 엄창 부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청탁받은 자객이 엄창의 인품에 감복해 개심하여 그의 수하가 되는 등 위기 상황마다 여러 종류의 조력이 이뤄진다. 그런데 그때마다 엄영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 형을 돕는다. 계후갈등이 드러난 작품 가운데는 <성현공숙열기>의 임유린, <완월회맹연>의 정인중과 같이 어머니와 뜻을 같이 하여 입후자를 폐하고 적극적으로 적장자가 되고자 악행에 가담하는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엄씨효문청행록>의 엄영은 입후자를 없애고 자신을 그 자리에 올리고자 하는 어머니 뜻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돌이키려 노력하며 위기에 처한 엄창 부부를 힘써 구하는 것이다.

최씨의 욕망은 엄영에 대한 사랑과 무관하지 않다. 계후갈등에서 승리하면 그 수혜자는 엄영이 될 것이기에 최씨의 악행은 아들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엄영 역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어머니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엄영은 어머니 반대편에서 엄창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것이다. 이처럼 엄영이 어머니의 사랑을 외면하면서까지 ‘우애’있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엄씨효문청행록>은 그가 타고날 때부터 “효문공의 성학디도를 쓰른바 청형도덕의 균지”이기²²⁾ 때문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엄창과 긴밀한 애착을 형성하며 성장했다는 점을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엄영은 아기 때부터 엄창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 엄영이 태어날 때 엄창 역시 6~7세의 아이였지만 애지중지 동생을 보살피며 “뒷양 글넓은 여가의는 발초최 경일누[엄영의 처소]를 써나지 아니호”고,²³⁾ 형의 사랑에 엄영 역시 “오륙 삭부터 조성수발호여 공즈를 보면 웃고 조화호며 우다가도

22) <엄씨효문청행록> 3권 38면.

23) <엄씨효문청행록> 3권 40면.

긋치고 공직 업스면 울고 보치며 공직 것히 이신즉 부인과 유모의게도 가지 아니”한다.²⁴⁾ 이처럼 갓난아기 때부터 엄영은 형과 매우 끈끈한 애착을 형성하고 이후에도 이런 관계는 지속되는데, 형 따르기가 유별나 2~3세 유아인데도 유모를 물리치고 서당에서 형과 함께 자곤 한다. 영유아에 해당하는 아이는 안채의 여성들이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엄영과 엄창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은 유달리 끈끈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그런데 최씨는 이 각별한 우애도 불편해 한다. 엄백진이 뒤늦게 얻은 엄영을 극애하면서도 동생을 아끼는 엄창을 기특하게 여기며 더욱 중애하니, 그럴수록 엄창을 향한 최씨의 미움은 커져간다. 엄창이 자신의 아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영 못마땅한데 그가 엄영을 귀애하며 덕망을 쌓고, 엄영 역시 그런 형을 사랑하며 잘 따르자 불쾌함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최씨는 엄영에게 형이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따르지 말라 이르며 둘 사이를 이간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엄영은 세 살 아이로 어머니의 이간하는 뜻은 알지 못하고, 어머니의 언질에도 엄창이 여전히 “영을 안고 순협을 접하고 등을 다려 간간테체헌 스랑이 아모곳으로조츠 나는 줄 췌닷지 못흐니”, 엄영은 신나게 어머니를 불러 “어머니 보쇼셔. (...) 우리 형장이 진실노 이쳐로 스랑흐시니 즈위는 이제는 근심 마로쇼셔.”라²⁶⁾ 말하며 엄창에 대한 최씨의 악감을 천진난만하게 폭로해 버린다.

이처럼 아기 때부터 엄영을 보살피며 그와 정서적 교감을 밀도 있게 나누는 장면에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인물은 어머니 최씨나 아버지 엄백진이 아니라 엄창이다. 최씨가 계후갈등에 몰두하고 엄백진이 공무에 바쁜 사이, 엄영과 긴밀한 애착을 형성하며 소통하는 이는 엄창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최씨는 아들의 내면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앞세우며 아들의 감정조차 통제하려 한다.

24) <엄씨효문청행록> 3권 41~42면.

25) 일례로 『양아록』의 기록에 의하면 이숙길은 5세까지는 안방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양육되다가 6세가 되어 사랑채로 옮겨 할아버지 이문건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문건, 이상주 역, 『양아록』, 태학사, 2000, 86면.

26) <엄씨효문청행록> 4권 54~55면.

영이 효위 출신하여 상시 공조를 싣오미 과도하던 고로, 공조의 병후로부터 주야 울고 숙식을 찾지 아니하니, 최부인이 공조의 죽기틀 죄이는 마음이 더한 의 운예갓거늘 아즈의 니러트 과쾌호를 더경하여 가만이 다리며 저허 왈, “창은 우리 명녕이라. 불행하여 죽은 즉 인심이 가련허거니와, 이는 문호의 불관하고, 너는 당당한 엄씨 더중이라. 그 귀중호미 만금의 더하고, ‘조시 년성박’의 더하거늘 네 비록 나히 어리나 몸이 귀중호 줄을 아지 못하고 이러트 조비아이 구려 상홀 줄을 심각지 아니하느다?” 영이 청과의 옥안성모의 누슈 이음츄 같오더 “모친야! 이 엇진 말씀어니잇고? 형은 문호의 중호 사름이라. 종스의 막중호시거늘, 이제 병이 중호시미 조선의 불행과 가운의 공참호미 비길디 업습거늘 자위 엇지 형장의 전일 효우를 니즈시고 즈이의 박정호미 이 갓흐시니잇고? 형이 만일 불행하면 헉이 홀노 세상의 머물 듯이 업느이다.” 설과의 옥된 방방하여 웃것술 적시니, 부인이 영이 창을 위하여 효위 혈심이물 노하여 크게 꾸짖져 추후는 좌하의 잇고 창외 병쇼의 가지 말나 하니 영이 크게 울고 종일 불식하니 부인이 홀일 업서 도로혀 다리더라.<엄씨효문청행록> 5권 24~26면)

최씨의 흥계로 엄창이 위독해진다. 그러자 엄영이 주야로 울며 숙식을 폐하고 점차 여위어 가니 최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을 달래는데, 엄창이 불행히 죽는다면 가련한 일이나 양자일 뿐이니 우리 문호에 불관한 일이고 너는 당당한 엄씨 대종(大宗)으로 귀한 몸이니 그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른다. 이에 엄영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어찌 전일 형의 효우를 잇고 이렇게 박정할 수 있냐며 비오듯 눈물을 쏟아낸다. 최씨는 더욱 노하여 형 곁에 가지도 말라 크게 꾸짖는다. 사랑하는 이가 죽을까 두렵고 슬픈 상황에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지 못할망정 이토록 매정하게 말하는 최씨의 모습에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뜻만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이후로도 최씨는 엄영이 형에 대한 사랑을 표출할 때마다 불쾌감을 표출하고, 이에 엄영은 최씨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마음을 숨기게 되니 모자간의 정서적 거리는 점차 더 멀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엄영은 어머니가 형을 해치기 위해 흥계를 꾸미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큰 충격에 휩싸여 실성유체(失性流涕)하며 그만둘 것을 간곡히 아뢰다. 그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란 사실도 알고 있기에, 그만두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 일을 해결할 것이라는 협박성 요청까지 하지

만 최씨는 오히려 “어미 구구한 정니와 간측한 스정으란 심각지 아니”한다며 엄영을 꾸짖고, “엄시 누더 누거만 지산을 네게 속혀여 평심이 평안과져 호미”라며 악행에 대한 정당성을 호소한다.²⁷⁾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는 것이다. 엄영이 간하기를 멈추지 않으니 최씨는 대로하여 수십장을 때리고, 그럼에도 영은 굽히지 않는다. 그리고 상한 다리를 끌고 형에게 가서 사실을 모두 고하고, 이는 다 자신이 세상에 있는 탓이라며 슬퍼한다. 엄영이 불과 6세 때의 일이다.

엄영에 의해 본심이 폭로되자 이후부터 최씨는 본격적으로 엄창 부부를 해하기 위한 일들을 벌인다. 윤월화에게 간부(奸婦)의 누명과 시가식구를 살해하려 했다는 온갖 혐의를 씌우고, 엄창에게도 시부살제(弑父殺弟) 혐의를 씌워 형부에 무고한다. 이런 일들은 모두 엄백진 등의 남성인물들이 출타하거나, 미혼단에 취해 정신이 온전치 않을 틈에 발생하므로 엄부에는 최씨를 견제할 사람이 없다. 그러자 엄영은 어머니가 형수에게 매질을 가한다는 소식에 혼비백산 달려가 섬돌에 머리를 부딪쳐 말리고, 형이 형부에 잡혀가자 혈표를 쓰고 등문고를 두드려 형을 변호한다. 어린아이 홀로, 자신을 위한다는 어머니의 악행에 대항하여, 미약하나마 온힘을 다해 사랑하는 형 부부를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엄영은 커다란 불안과 좌절, 깊은 슬픔을 느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형이 시부살제(弑父殺弟) 혐의로 잡혀갔을 때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의식이 돌아오자 어머니에게 형이 무사치 못하면 홀로 살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형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고발해야 하니 친자 앞에서 제대로 폭백하지도 못한다. 그나마 엄영의 호소에 엄창의 형벌이 유배형으로 감형되자, 떠나는 형을 붙들고 চে읍오열(涕泣嗚咽)하며 “형장이 이 경계를 당히시미 전혀 불초데 세상의 잇는 연피라. 이후 세츠를 보아 만일 종시 쇼데의 뜻과 갖지 못호올진디 당당이 한 목숨을 곁혀 죄를 속하러 호느이다”라 말한다.²⁸⁾ 엄영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생긴 이 비극이 자신의 존재로 인해 발생했다는 깊은 죄책감, 자신이 해

27) <엄씨효문청행록> 10권 40~42면.

28) <엄씨효문청행록> 23권 23면.

결할 수 없다는 커다란 무력감을 느끼며 자살사고에 시달리기까지 한다.²⁹⁾

엄영은 괴로운 마음에 어머니 앞에서도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어린아이의 절절한 호소에도 최씨는 전혀 그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다. 도리어 자신보다 형을 더 사랑한다며 역정을 내고 “즈녀의 마음이 하나토 즈기와 갖지 못흐를 이달나”³⁰⁾ 할 뿐이다. 최씨는 엄영을 위해 업창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한다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망에 매몰된 것에 불과했고, 그의 악행은 업창만이 아니라 엄영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일이 될 뿐이었다.

한편 자살까지 생각하게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도 엄영을 버티게 한 것은 형 업창과 맺은 끈끈한 애착이었다. 어머니가 유배지로 떠난 업창을 그 마저 아예 없애려 계획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엄영은 다시 “심골이 경한하고 혼빱이 니체호여 (...) 정신이 산비호여 분기 업이호니 좁아 견디지 못호여 즈결코저” 한다.³¹⁾ 그러나 곧, 유배길에서 오염하는 자신을 다독이며 죽을 생각 말라며 따듯이 어루만져 주었던 형 생각에, “니 좁아 형장 경계를 저버리지 못할 것이오, (...) 찰호리 장소로 가 형장기 소유를 고타호여 선처호시게 호고 인호여 한가지로 머무러 즈위의 회과호시를 기다”리기로 결심한다.³²⁾ 고통스럽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엄영은 그렇게 기출하여 적소에 찾아가 형을 만나고, 형의 따듯한 환대에 죽었던 모든 감각과 정서가 되살아난 듯 생기를 되찾으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³³⁾

이처럼 엄영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며 벌인 일들로 큰 고통을 겪는다. 그가 겪은 상황은 결코 평범한 성장통이라 할 수 없다. 안정된 애착이 형성됐어야 할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심적 고통을 겪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고 극단적 생각에 휩싸이는 등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

29) 엄영은 어머니의 악행을 만류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이 죽어 이 사태를 끝내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당면한 사태에 대해 홀로 고민할 때도 “즈기 혼번 쾌히 죽어 모부인 넘너를 쫓고져 호미 한두 번 아니”었다. <엄씨효문청행록> 24권 57면.

30) <엄씨효문청행록> 21권 173면.

31) <엄씨효문청행록> 24권 18면.

32) <엄씨효문청행록> 24권 19면.

33) “쇼대 형장을 찌난 후로는 만스의 흥황이 업서 식음의 맛시 업고 언쇼의 뜻이 업더니, 금일 형장을 보오니 우음이 절노 나고 형장과 음식을 한가지로 먹으미 그 맛시 쏘 유미호이다.” <엄씨효문청행록> 24권 75~76면.

기도 하였다. <소현성록>에는 엄영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유흥이란 인물이 불과 일곱 살의 나이에 자살하는 사건이 나온다. 부친 사망 후 친모 방씨가 친생자에게 가권을 물릴 요량으로 전실 자식들, 즉 유흥의 형, 누나를 죽이려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자, 유흥은 그것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자책하며 유서를 남긴 채 자결하고 만다.³⁴⁾ 이 사건은 짧게 등장하고, 자결의 과정이 7세 아이의 것이 아닌 어른의 이념적 행위처럼 그려지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의 마음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상상해보면 깊은 슬픔과 무력감, 우울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유흥 역시도 엄영과 같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이며, 역으로 엄영의 죽고 싶다는 말은 말뿐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엄영은 형과 끈끈한 애착이 형성되어 있었고, 바로 그러한 관계에서 차곡차곡 비축된 내력(內力)이 있었기에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2. 부모 폭력에 의한 갈등과 애착 형성

한글장편소설에는 아동학대 장면이 심심찮게 나온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아동 살해에 해당할 것이다. <사씨남정기>의 교씨가 사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것처럼, 처첩갈등 상황에서 적국(敵國)의 후사를 없애기 위해서, 혹은 누명을 씌우기 위해 아기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유아 사망률이 높은 시대이기도 했고, 유아는 여러모로 취약한 존재이기에 사망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그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지, 서사 내에서 유아 사망 사건은 그 문제성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 <유씨삼대록>에는 악인형 인물 민순량의 갓난아기가 버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버려진 아기가 길에서 죽자 서술자는 “툰되 쇼 〃 하더러” 평하며,³⁵⁾ 무고한 갓난아기에게 어머니 죄를 연좌

34) “내 이시므로 모친이 이 지물로뻘 앓기샤 이 거조를 하시니 엇디 내 몸을 인후야 여러 동성을 죽이리오. 내 죽으면 모친이 불의지시 망단하시고 낭형이 사라 조선 후스물 보호하리니, 내 혼갓 죽기를 어려워 디류하다가 즈란 세 동성을 못죽면 디하의 가 어너 늦츠로 선군을 보오리오.” <소현성록> 5권 47면.

35) <유씨삼대록> 4권 61면.

시켜 그 죽음이 마땅하다는 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온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후기에는 가장에게 자식의 생사여탈권이 부여되고 부모의 체벌이 긍정되었기에, 아동학대라 여겨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소설에 등장하지만 심상한 일상사 혹은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는 관점에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도 아동에 대한 폭력의 서사가 문제성을 띠고 밀도 있게 그려진 작품이 있다.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이 그것인데, 부자간의 갈등과 효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이 이 작품들은 부모의 폭력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의 삶을 잘 그리고 있다. 성군으로 추앙받는 순(舜)과 혼암한 그의 부친 고수(瞽瞍)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았다고 여겨지는 두 작품에는 중심인물의 효 수행 과정과 그 가치가 강조되어 있는 한편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한 자식의 번민과 고통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³⁶⁾

□ <유효공선행록> 유연의 서사는 특히 문제적이다. 유연은 작품 내에서 대순에 비견되며 고난 속에서 효행을 지극히 수행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그는 오래도록 아버지 유정경과 동생 유흥의 증오와 폭력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지닌 채 아내와 아들에게 폭압적 행태를 대물림한다. 뿐만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로서도 공적의 부모보다 가족의 안위를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어 왔다.³⁷⁾

36) 이지영은 ‘못된 아버지’와 효자아들의 갈등에서 아들의 고통과 번민에 대해 면밀히 논의한 바 있는데 본고는 대체로 이지영의 논의에 공감하면서 아들의 애착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 논의한다. 이지영, 앞의 논문.

37) <유효공선행록>의 유연 형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다수 있다. 양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체문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1;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최윤희, 『<유효공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학회, 2005;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5;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 수행이 부모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연과 정소저 부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이지영, 앞의 논문; 줄고,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9; 줄고, 『<유효공선행록>의 감정 표출 양상과 서술의식』, 『고소설연구』 52, 한국고소설학회, 2021.

유연이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하는 과정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유정경은 아들을 불신하고 혐오하기 일쑤이며 화를 주체하지 못해 기물을 들어 몸소 폭행하는 것은 물론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한다. 그의 폭력은 훈육적 의도나 의미를 상실한, 그저 자신의 분노를 어찌지 못해 아들을 학대한 행위에 불과했다. 어리석은 탓에 여러 모함과 이간질에 현혹되어 저지른 패행이라는 설정이 마련되어 있고, 유연에 대한 애정이 표출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그저 자신의 기분에 따른 행위였을 뿐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유연에게 쏟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유연의 효행은 지극하다.

하지만 지극한 효행을 고수하는 유연은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서 심각한 우울과 불안, 체념의 정서가 감지되고, 그러한 정신적 문제는 신체화되어 토혈과 같은 병증으로도 곧잘 나타나다가 40대에 단명하기에 이른다.³⁸⁾ 더욱이 그는 재회한 형성가족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 특히 아들 유우성에게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와의 부정적 애착 관계를 대물림하게 된다.

고전소설 일반의 서사전개를 감안해 본다면 유연 이야기의 후반부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하게 전개되던 부자갈등이 해소되고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효자 유연이 훌륭한 가장이 되어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하는 면모를 보일 것이라 기대되는 국면에서, 그는 장인에게 품은 원한을 고집하며 공연히 아내와 아들 유우성을 오랜 기간 냉대하면서 스스로 갈등 요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유효공선행록> 서술자는 그것 역시 유연의 치가(治家) 과정으로 긍정하지만 구체적 장면에서 드러나는 유연의 언행은 문제적이다.³⁹⁾ 특히 그는 “우성은 비록 영민했으나 너무 발호하여 공순한 품이 적으니 만일 엄히 굴아치 아닌즉 함위된하경박조호리니, 맛당이 사랑을 준절이 흐실 비”라는⁴⁰⁾ 우성에 대한 편견을 견지하면서, 아들

38) 유연의 건강하지 못한 정서 상태에 대해서는 일찍이 여러 연구에서 주목되었고, 우울증, 화병으로 분석된 바도 있다. 탁원정, 『정신적 강박증과 육체의 지병-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1, 2016; 김민정,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우울증 발현 과정과 그 의미』, 『동양문화연구』 28,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18; 엄원희, 『국문장편소설 인물들의 갈등과 화병, 치유의 문제』, 『한국민족문화』 7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39) <유효공선행록>의 말하기 방식과 보여주기 방식의 괴리에 대해서는 최윤희, 앞의 논문; 줄고, 앞의 논문(2021).

40)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6권 134면.

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폭언과 냉대, 강압적 태도만을 보인다. 결국 유우성이 아내를 참혹하게 폭행하는 패행을 저질러 유연의 편견이 지인 지감(知人之鑑)이었던 듯 서술되지만, 실상 유우성의 성격이 파탄에 이른 데에는 유연 자신의 폭압적 태도, 아들과 맺은 불안정 애착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유연 자신이 아동기 안정된 애착을 맺지 못한 사실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애착 패턴은 세대 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며 성찰되지 못한 불안정 애착은 대물림되기 쉬운데,⁴¹⁾ 유정경, 유연, 유우성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의 대물림이 감지되는 것이다.

유연은 5~6세 쯤 어머니가 사망한 뒤 서모 주씨의 자애를 받으며 자랐다고 서술되지만, 유연의 애착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서술되는 것은 부친 유정경이다. 그는 그런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동생 유흥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유정경은 늘 유흥을 편애하여⁴²⁾ 유연에 대한 유흥의 터무니 없는 모함을 들을 때면 유연을 불러 “꼭질을 니르지 아니하고 다만 불효부제호를 더칙”⁴³⁾ 한다. 강압적이고 독단적 태도의 아버지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유연은 그런 아버지와 소통하기도 쉽지 않아서, “심히 두리고 슬허 몸을 즈칙하고 가지록 효우호를 힘”⁴⁴⁾ 뿐이었다. 유흥의 이간이 강화되며 더해지는 폭언과 매질, 폐장과 자결의 명에 이르기까지, 유연은 빈번하게 끔찍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천후의 엇디 올치 아닌 부모 이시리오”⁴⁵⁾ 부정적 감정을 오롯이 억압한 채 부친 앞에서는 온화한 감정 상태를 강박적으로 고수하였다. 말하자면 유연은 옳지 않은 부모는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41) 애착 패턴이 세대 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은 많은 임상 장면에서 목격된다. 대다수의 경우 어린 시절 맺은 애착 유형을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된 뒤 자신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반복, 대물림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애착 패턴이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며,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노력하여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대물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메타인지적 능력, 즉 자신의 경험과 자신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J. 윌린, 앞의 책, 64~93; 마리오 마론, 앞의 책, 213~227면.

42) “뉴시랑이 곁호여 인물이 석험호 일편되어 잔인호 일이라도 능히 홀 위인이라. 냥즈를 비록 스랑하나 당즈의 절적효순호를 낫비 너겨 당으는 내 뜻을 맞지 아니코 혼갓 낫빛출 지어 아당호고 추으는 낫빛출 순치 아니나 내 뜻을 순종호니 천연호 근즈효즈의 도리라 호더니.”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5권 6면.

43)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5권 14면.

44)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5권 15면.

45)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5권 107면.

효자의 규범적 태도에 자신의 내면을 구속하고 확대당한 경험과 감정을 애써 외면했던 것이다.⁴⁶⁾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며, 화가 날 마땅한 상황에서조차 극단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일상 속에서 그의 감정발달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⁴⁷⁾ 그리고 성인이 되어 일가를 이루고서도 형성가족과 적절한 감정 교류를 하지 못한다. 그는 긍정적 감정을 느낄 때조차 그것은 애써 외면하고 폭언, 냉대 등의 부정적 상호작용에 치중하며 어린 유우성에게 깊은 우울과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유우성은 다섯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마주한다. 그런데 처음 만난 아들에게 유연이 한 말은 네 어미 “기가홀 뜻이 잇는 출뻐오, 엄구와 지아비 히히 죄인”이니⁴⁸⁾ 연을 끊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성은 지속적인 아버지의 냉대를 견뎌야 했다.

부인이 기리 탄하고 공직롤 도라보아 왈 “이는 네 어미 박명(薄命)이오, 너의 팔직(八字)니 상셔의 그르미 아니라. 즈식이 되어 어미 말을 듯고, 식음을 폐하고 곡읍(哭泣)히미 회(孝) 아니라 효즈의 지극헌 도리 아니”, 히으(孩兒)는 모로미 아비 섬기는 도리 네 업친을 효측헌즉 비록 처즈의게 매물흐나 대효(大孝)를 일치 아니히리라.” 공직 울고 왈 “히이(孩兒) 세상을 아란 지 칠년이라. 일즉 흐리도 므음이 즐겁지 아니코 시”(時時)로 대인 엄괴 모친기 밋출 썩는 사라시미 히이라. 엇지 참아 안”(晏晏)히리잇고.” 부인이 악연이 눈물 느리오고 말을 아니터

46) 자신을 방치하고 확대했던 바로 그 부모 대상에게 강렬한 애착, 심지어 이상화를 이어가기도 한다. 또한 병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과 외부에서 주입된 관점이 불일치하여 관점들을 통합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애착장애의 대물림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어린 시절 직접 경험한 ‘일화기억’과, 자신이 배운 세상에 대한 일반적 명제가 저장되어 있는 ‘의미기억’이 불일치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고 한다. 즉 어린 시절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치료가 진행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신을 확대하고 방치했던 많은 사건들을 기억해낸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사건에 얽힌 고통스러운 감정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욕구 때문인데, 유연의 경우도 옳지 않은 부모는 없다는 의미기억에 의해 폭력의 기억, 그것과 얽힌 고통스러운 감정 등의 일화기억이 억압된 것으로 보인다. 모리스 N 이글, 이지원·이성원 역, 『애착과 정신분석』, 학지사, 2020, 133~135면; 마리오 마론, 앞의 책, 221~227면.

47) 유연의 정서적 상태를 가장 적극적으로 분석한 것은 염원희인데, 그는 유연의 내적 상태에 대해 ‘화병’으로 진단하고 작품 후반부에서 자신의 화와 그로 인한 폭력성을 아내와 아들을 향해 발산한다고 논의하였다. 염원희, 앞의 논문.

48)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6권 112면.

라.(『필사본고전소설전집』 16권 178~9면.)

유우성이 어머니에게 화가 난 아버지에게 불려가 어머니에 대한 험담과 화풀이를 듣고 온 장면이다. 상습적으로 모친에 대해 험담하는 아버지를 향해 우성은 논리정연하게 어머니를 변호하기도 하고 자애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성에게 유연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 그는 내심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을 기특히 여기기도 하지만, 칭찬하거나 위로하는 등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전혀 하지 않고 “짐짓 절척(切責)하여 물니”질 뿐이다.⁴⁹⁾ 더욱이 어머니 정부인조차 우성의 상처에 공감하거나 위로해주지 않는다. 아내에 대한 불만, 그마저 합당하지 않은 화를 아들에게 옮기고, 아이가 상처받아 눈물을 흘려도 자신의 감정에만 매몰되어 못마땅해하는 기색만을 보이는 아버지와, 그런 일을 당하고 돌아와 “사라시미 혼이라.”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에게 “너의 팔자(八字)니 상서[유연]의 그르미 아니라.”며 효를 다할 것을 당부하는 어머니 곁에서, 어린 우성은 안정된 애착을 느끼기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더군다나 입후된 유백경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신은 비난하고 미워하지만 백경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편중(偏愛偏憎)도 감내해야 했다. 그렇게 혐오의 감정을 일상적으로 내보이는 엄혹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자신에 대해 방관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유우성은 온전한 정서적 지지나 연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정서적 파탄의 지경에 이른다.

유우성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아내 이소저를 참혹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에서였다. 그것은 동침을 지연시킨 아버지 명을 어기며 벌인 일로 단지 “어린 아히 식욕이 과도하여 방탕”하기⁵⁰⁾ 일으킨 일이라 할 수 없었다. 이때의 유우성 감정선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소저에 대한 애욕보다 모멸감에 대한 복수심이 강렬하게 표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기실 명령을 내린 아버지에게 가닿아 있다.⁵¹⁾ 아버지에게 표출할 수 없어

49)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6권 177면.

50)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6권 255면.

51) 유우성은 이소저에 대한 애욕을 숨기지 못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모로부터 비난받는다. 그러던 중 이소저를 폄박하다가 들리고 이때 꾸지람을 듣게 되자 우성은 부친 세를 끼고 교만하게 군다며 이소저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한다. 그리고 부모가 집을 비운 날을

억압되었던 유우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왜곡된 채 약자인 이소저를 향한 폭행으로 전화되었던 것이다.⁵²⁾

이 사건으로 유부 전체가 충격에 휩싸이고 유우성과 유연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지만 우여곡절 끝에 우성은 유연의 용서를 받고,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애정을 느껴 비로소 개과한다.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서술자는 “완(頑)헌 아비[유정경]와 광(狂)헌 아들[유우성]이 다 정도(正道)로 도라”가게⁵³⁾ 했다며 유연을 훌륭한 인물이라 평하지만 그 구체적 장면을 통해 보여지는 유연의 행태는 결코 긍정적인 아버지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유우성의 인격적 파탄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냉대와 혐오를 겪으며 안정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연은 스스로 겪은 어린 날의 고통으로 인한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것에 대해 성찰적 태도로 사유하지 못한 채 자녀 양육에 있어 자신의 불안정 애착을 아들에게 대물림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㉔ 그런데 <유효공선행록>과 함께 부자갈등 서사로 자주 논의되는 <보은기우록>의 위연청은 학대의 경험에도 비교적 견강한 정서 상태를 지닌 듯 보인다. 그 역시 아버지의 폭력에 생사를 오가는 극단적 위기까지 겪으며 평생 신체적 후유증을 안고 살지만, 효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부친에 대한 효(孝)를 타인을 향한 인의(仁義), 사회적 윤리로까지 확장시켜 구현하는 삶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인의 면모를 완성하고⁵⁴⁾ ‘부정적 아버

노려 동침을 거부하는 이소저 앞에 두 명의 창기를 불러 음행하고, 저항하는 이소저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후 강간한다. 이때 유우성은 애욕보다도 복수심을 강렬하게 표출하며 앵혈이 없어진 이소저를 향해 자신보다 엄구를 따른 결과라며 조소한다. 더욱이 이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는 이소저이며 가해자는 유우성이지만, 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유우성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를 향한 인정욕구가 충족되어 개심하게 된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 유우성은 이소저에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갈등에 대해 이소저 탓을 하며 폭행을 더하기까지 한다. 유우성이 이소저 폭행 사건을 일으킨 근본 원인은 이소저에 대한 것보다 부친 유연에 대한 감정과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논의는 줄고, 앞의 논문(2021, 123~132면.) 참고.

52) 줄고, 앞의 논문(2021), 132면.

53)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6권 371면.

54) 가족 윤리인 효가 사회적 윤리와 상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맹자는 효계가 사회적 인의로 확장된 사례로 순(舜)의 효계를 강조하였다. 장원태는, 맹자가 순의 삶을 인류의 표준으로 삼은 까닭은 순의 삶이 인(仁)을 행하는 실천의 근본으로

지'를 극복하여 '이상적 아버지'가 된다.⁵⁵⁾ 즉 유연이 폭압적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효제라는 신념을 지향하는 데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내면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반면 위연청은 비슷한 경험에도 비교적 건강하게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차근차근 이뤄낸 것이다.

위연청의 삶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해진 것은 비교적 늦은 시기이다. 부친 위지덕은 “스름되오미 잔잉 각박하고 불근인정헌”⁵⁶⁾ 인물이지만 다행히 위연청에게는 어진 어머니 양씨가 있었다. 어머니의 자애를 받으며 잘 자라던 위연청은 3~4세 때부터 남달리 어질며 욕심없는 성격이 드러나고 위지덕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때마침 외숙 양거인이 방문해 연청을 보고, 그 탁월한 기질이 부친에 의해 훼손될까 염려하여 자신이 데려가 가르치겠노라 제안하게 된다. 양씨 역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제안을 반갑게 여기고, 위지덕은 아들에게 무관심하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거인이 위연청을 데려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양육하게 된다.

이 시기 위연청은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양거인 식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촉 땅에서 몇 년간을 부모 곁을 떠나 있으니 때때로 그리움을 느끼지만, 외숙의 집에는 다섯 살 많은 사촌형도 있어 “서로 겁거르고”, 어머니가 어렵게 구해주던 두어 권의 책만 보다가 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되니, 그간 갈급했던 공부에 대한 갈증을 풀며 일취월장 성장한다. 10세 무렵에는 촉 지역의 서당 수재를 뽑는 행사에서 매번 장원을 하며 위태수의 총애도 받게 된다. 위태수는 위부의 지친이었는데, 위지덕이 사인(士人)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천역에 종사하는 것을 가문의 수치라 여겨 소원히 지내다가 그 아들이 총명함을 보고 “크게 갖거 스랑호여 손을 잡고” 위지덕에 의해 추락한 “부형의 누세와 가문에 오욕를 시습을 바라노라” 기대한다.⁵⁷⁾

씨 효제(孝弟)를 보여준 동시에, 효제의 실천으로 보여준 인의 마음을 천하로 옮겨 확장한 사례이므로, 그 자체로 도덕률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라 논의한 바 있다. 장원태, 『맹자 성인론의 의미-제가 비판과 실천론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3호, 한국유교학회, 2016, 132면.

55) 이지영, 앞의 논문, 104면.

56) <보은기우록> 1권, 8면.

57) <보은기우록> 1권 13면.

위연청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곁을 떠나 생활했지만 친척 집에서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았고, 주변의 기대감에도 스스로 잘 부응하여 높은 성취감,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10세가 되던 해 승선사의 불교행사에 참여하여 불교의 폐단을 논리정연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며 무고한 생명까지 구한 장면과, 불효비례(不孝非禮)해야 곤액을 벗어날 수 있다는 도사의 예언에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고난을 당하고 말겠다며 소신 있게 말하는 장면에서는, 위연청의 가치관이 주체적으로 단단하게 여물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을 빈번하게 경험한 유연의 아동기와는 매우 다른 성장 과정을 보냈던 것이다.

위연청은 12세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수년 동안 이별했던 아들의 귀환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지만 어머니 양씨는 그를 따뜻하게 환영한다. 그리고 아들을 단지 재산 증식에 보탬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위지덕 몰래 연청에게 책을 사다주며 그의 학업을 열심히 응원한다. 그러나 이듬해 양씨가 독질에 걸려 사망하고, 아버지의 첩 녹운이 위부에 들어와 부자기간을 이간하면서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된다.

둘의 갈등은 축재(蓄財)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⁵⁸⁾ 청빈한 사족의 삶을 추구하는 아들과 푸줏간 일을 하며 부의 창출에 온 힘을 쏟는 아버지 사이 오해가 더해지며, 불문곡직(不問曲直) 아버지의 폭행이 시작된다. 그렇게 강도 높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위연청은 유연과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태도로, 심지어 화기를 띠고 가만히 맞고만 있다. 위연청 역시 유연처럼 부친의 폭력에 속절없이 당하며 오롯이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순종하는 것 이외의 다른 도리가 없다는 체념적 정서가 읽히지만,⁵⁹⁾ 위연청의 대응은

58) 부자갈등이 재화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했다는 관점에서 갈등 사건을 논의한 것은 최수현,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2005, 37~52면.)에 자세히 다룬다.

59) 이에 대해 절대적 효이념을 표방하는 작품의 의식지향이 드러난 장면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지영은 유연과 위연청의 순종적 태도에서 절망감을 읽어낸 바 있다. 절대적 효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아들의 생사여탈권이 가장에게 있던 조선 후기, 아버지에게 맞아 죽는다 해도 ‘죽어도 무방한 패자’거나 ‘죽어도 원망하지 않는 효자’가 될 뿐인 상황에서 아버지의 폭력을 순종하며 견디는 인물들의 태도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이런 상황을 피하지 않는 행동에는 그들의 체념과 절망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분석이라 생각되는데, 위연청과 유연의 내적 상태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 앞의 논문, 90~95면.

보다 주체적이며 결연하다.

위연청에게 가해진 가장 강도 높은 학대는, 고리로 빌려준 돈을 받아오라는 위지덕의 명을 어기고 이자를 탕감해준 일로 인해 일어난다. 이 일로 위지덕은 아들에게 극도의 분노를 분출하여 폭행하고 연청은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가 선약의 도움으로 살아난다.⁶⁰⁾ 그런데 이때 위연청은 이미 재물로 인해 매질 당한 적이 있기에 자신의 행위가 어떤 화를 불러올 것인지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열 배의 고리를 갚기 위해 패가(敗家)하거나 매자(賣子)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밤새 고민하다가, 부친에게 돌아갈 매명(罵名)을 막는 것이 진정한 효행이라 생각하며, “가정(家政)의 허물을 덮고 일시 칙벌(責罰)을 두릴 배 아니오.”⁶¹⁾ 결심한 후, 부친의 뜻을 빙자해 이자를 탕감해버린다.

위연청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달이 날지 알고 있었으며, “엄정의 성노(盛怒)를 밧조오미 그리 당연호리라. 내 늑니호여 스스로 헤여 죽음을 주셔도 감수호”겠다고⁶²⁾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가 기어이 부명을 어긴 것은 부당한 고리대금으로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면 아버지의 엄벌을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로써 보면 위연청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까지 고민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에게 당장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더라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효행이라는 결연한 신념이 있던 것이다.

이 점이 유연과 상반되는 지점이다. 유정경의 그릇된 판단에 정대한 간언을 서슴지 않던 유연은 부친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학대에 어느새 의기를 점차 잃고 스스로 “출하리 불의(不義) 될지언정 더인(大人)과 쓰즐 일치 아니리라 크게 믿음을 정”⁶³⁾ 뒤부터는 부친에게 인정받는 일에 강하

60) 이 역시 녹운의 이간계가 더해졌기 때문에 위지덕의 폭력성이 극에 달하게 된다. 즉 녹운은 위연청이 이자를 탕감했다는 사실을 알고 위지덕에게 연청이 이자를 창부에서 탕진해 돌아오는 데다 일전에 자신에게 음심을 보이며 위지덕을 위협하는 패륜적 언행을 하였다고 포함했던 것이다.

61) <보은기우록> 7권 220면.

62) <보은기우록> 7권 224면.

63)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5권 184~5면.

게 집착하며 다른 인간적 관계, 사회적 역할을 경시하거나 왜곡했다. 특히 부자관계에서 형성된 정서적 문제를 아내와 아들에게 전가시키며, 유년 시절 학대의 경험을 아들에게 대물림하고 말았다. 그런데 위연청 역시 아버지의 학대를 받았고, 그에게 부자관계의 회복이 매우 중요한 화두였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의를 실현하고자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러한 가치 추구의 기저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정서가 있는바,⁶⁴⁾ 그것은 어린 시절 친밀한 애착 관계에서 경험한 긍정적 상호작용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III. 아동 서사의 의의

1. 다양한 관계의 애착 형성

<임씨효문청행록>에서 엄영이 부모뿐 아니라 형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경험은, 그가 심적 고통을 잘 이겨내고 어머니의 악행에 반대하며 효우를 추구할 수 있게 한 힘이 되었다. <창선감의록>, <성현공숙열기> 등의 서사와 비교할 때 그런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데, 화춘과 임유린이 장자권을 욕망하며 어머니와 함께 악행을 도모한 일은 그들의 타고난 성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서술되지만 더불어 아버지의 냉대가 그려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화춘과 임유린을 혐의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아들들, 화진과 임희린을 편애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형제를 스스럼없이 사랑하기란 쉽지 않고 형제자매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비교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바, 화춘과 임유린이 친모에게 한정해 긴밀한 애착을 형성하고 다른 가족들을 적대시하게 되는 과정에 아들을 냉대하는 아버지의 태

64) 위연청의 ‘효’는 맹자가 도덕률의 모델로 삼은 순의 삶, 즉 인을 행하는 실천의 근본이 효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근본인 효제에 힘써 이를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한 사례와 같으며, 위연청에게 있어 ‘효’란 부모와의 관계에 국한된 가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논의된 바 있다. 졸고, 앞의 논문(2019), 71면.

도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창선감의록>과 같은 작품의 서술자는 “그 아들 춘은 사람됨이 보잘것없어 화공이 그리 사랑하지 않았다(其子璿, 品格凡庸, 公不甚愛之)”며⁶⁵⁾ 곱끄러운 부자관계의 원인이 화춘이 범용한 탓에 있다는 의식을 드러내며 그로 인한 화옥의 냉대를 문제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집안을 망칠 아이는 춘이고,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 진이야.”라는 아버지 말에 상처받는 화춘의 내면이 그려지면서⁶⁶⁾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화춘의 성장 과정이 포착돼 있기도 하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아이의 내면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이 보편적 상식이 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장면들이 인물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안정 애착의 요소로 읽히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엄영은 어릴 적부터 친모뿐만 아니라 부친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았고, 특히 형 엄창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애착 관계를 보다 잘 형성한 것으로 그려져 있어, 여러 위기 속에서도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의 비교논의를 통해 아동기 애착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위연청이 참혹한 학대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 신념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여러 관계를 통해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반면 유연은 어린 시절부터 부친과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소외와 학대 속에서 그것을 상쇄할 만한 다른 인간관계도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삶은 아버지와 동생과의 관계에 고립되어 있었고,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65) 이지영 역,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2021, 33면.

66) “(…) 우리 집안을 망칠 아이는 춘이고,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 진이야.’ 그리고 다시 정색을 하고 춘을 나무랐다. (…) 춘은 무안하고 창피했다. 그래서 물러가 그날 밤 어머니 심씨에게 말했다. ‘소자가 지나치게 사랑을 받았던 탓에 노느라고 학업을 소홀히 하였으니, 책망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인께서는 지나치게 노여워하시면서 ‘화씨 집안이 네 손에서 망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자식으로서 어찌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亡吾家者璿也, 興吾家者珍也. 復正色責璿曰(…) 璿慙愧而退. 時夜, 告于沈氏曰: 小子過蒙嬌愛, 荒嬉廢業, 不肖之責, 固所甘心. 而今日大人過加嚴怒, 至以花氏宗祀覆於汝手爲教, 爲人子者, 寧不痛心哉?)’ 위의 책, 43면.

관계를 통해 얻은 것이라곤 증오와 학대뿐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보이는 감정의 미숙함은, 자신 역시 부모와 풍부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소통, 교감을 경험해보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위연청은 13세 이후의 준성인이 될 무렵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겪기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는 어머니와 외숙의 애정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도 그 재능과 인격을 인정받아 높은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느끼며 자랐던 것이다. 이처럼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친밀한 사람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했기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렇게 단단해진 그의 내력이 부친의 가혹한 학대에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해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만족스러운 애착을 경험하거나, 지지와 안정을 후원해주는 제2의 애착인물이 있는 경우 나쁜 환경을 극복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갖게 하는 것이다.⁶⁷⁾

이처럼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맺는 애착은 인간의 삶에 다각도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아이와 긍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주된 인물은 부모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이 양육 환경에 있어 친어머니의 존재와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모성의 숭고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통 사회의 양육 방식, 전통적 어머니상을 소환하곤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작품들은 그런 통념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모가 아이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주범이 되는 한편 형이 가장 긴밀하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가 하면, 부득이하게 부모를 떠났어도 외숙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여 부친의 극단적 학대에도 비교적 잘 버텨내는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한글장편소설들은 다양한 애착 관계, 다채로운 양육 과정의 현실을 반영해 보여준다.

물론 <소현성록>의 양부인과 같이, 유복자를 낳아 입신출세시키고 가문을 재건하기까지 가장의 역할 또한 훌륭히 해내는, ‘위대한 모성’의 전범을 보여주는 어머니도 등장한다. 그런데 <임씨효문청행록>의 최씨와 같이 과도한 모성은, 가부장이 정한 가문 질서에 저항하거나 아이의 바람을 무시하면서까지 계후갈등을 촉발하기도 하기에 위험한 것으로 다뤄진다. 심지어 한글장편소설에는 자신의 아이를 불편하게 여기며 냉담하게 대하는 여성

67) 마리오 마론, 앞의 책, 50면.

주인공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현씨양옹쌍린>의 주소저,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 <창란호연록>의 한난희와 같은 인물들은 모성애보다 강한 자기애를 드러내며 어머니 역할을 방기하기도 하는 것이다.⁶⁸⁾

한편 <엄씨효문청행록>의 형 업창, <보은기우록>의 외숙 양거인처럼 아동들은 다양한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보살피진다. 친모가 부재할 경우 계모나 서모, 조부모가 주양육자가 되어 보살피는 경우도 많고, 특기할 점은 남성인물들도 양육과정에 참여하며 애착을 형성하는 서사가 꽤 발견된다는 것이다.

<옥원재합기연>, <창란호연록>, <쌍천기봉>에는 아이를 살뜰히 돌보는 아버지들이 등장한다. <창란호연록>의 장희는 부인 한난희가 둘째 아이를 조산하고 건강이 위태롭자, 미숙아는 삼칠일 간 어머니 품에서 지내야 건강해진다는 치유법을 듣고 아이를 직접 자신의 품에 품어 돌본다.⁶⁹⁾ <옥원재합기연>의 소송은 아내가 소세경을 낳고 산후통으로 사망하자 아이가 혹여 계모에게 홀대받을까 염려하여 재취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한다. 소송은 당대 전형적인 아버지들과 달리 자기희생적이고, 아이에게 공감하며 다정히 소통하는 데 능하며, 훗날에는 며느리와 손자녀까지 돌본다.⁷⁰⁾ <쌍천기봉>의 이관성 역시 다감한 아버지인데, 아내 정몽홍이 출거당하자 남겨진 두 아이를 살뜰하게 보살핀다.⁷¹⁾ 특히 두 살의 이몽창이 떠난 어머니를 찾으며 도무지 진정하지 않자 이관성이 직접 데리고 자며 달래는데, 이관성은 형제들에게 “칠척 대당부로 유으를 품어 기르는 거동”이 우습다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몽창이 “가련하야 슬상의 안티고 스랑하미 비길 디 업”고, 몽창 역시 “연성으로 더브러 노다가 야”를 보고 밧비 니드라 밧잡고 반기물 이기디 못”한다.⁷²⁾

삼촌들이 나서 조카를 돌보는 장면도 꽤 많이 등장한다. 삼촌 조카 사이 애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은 <쌍천기봉>이라 생각되는데, 이관

68) 이지하, 앞의 논문(2004).

69) 이지하, 앞의 논문(2004), 155~157면.

70) 한글길연, 앞의 논문(2020).

71) <쌍천기봉>에는 친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친, 삼촌, 계모 등 가문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아이 양육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즐고, 『<쌍천기봉>에 나타난 양육 양상과 그 의미』(『동서인문학』 61,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 참고.

72) <쌍천기봉> 권3, 73~75면.

성이 공무로 바빠지자 그의 동생 이연성이 이몽창을 돌보기 시작한다. 자타 공인 “연성이 즈모 소임을”⁷³⁾ 한다고 얘기될 정도로 이몽창, 이연성 숙질 간은 가장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둘의 친밀함은 일평생 지속되는데, 함께 나간 출정 길에서 이몽창이 물에 빠져 실종되자 가장 깊은 슬픔을 표출한 이도 이연성이었다. 몽창이 승승장구 출세하여 축하연이 열릴 때 “수취 설스 몽창을 나하 겨시나 쇼지 기라지 아나시면 엇디 더디도록 숙성”⁷⁴⁾ 하냐는 연성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옳다고 인정하기도 한다. <명행정의록>에 역시 삼촌이 조카를 아끼는 장면이 사랑스럽게 그려져 있다. 위규범은 친모 소예주가 악행을 들켜 유배길에 오르자 첫째 어머니에 의해 양육된다. 그런데 아버지 위천보는 소예주의 악행에 분노해 그 딸을 소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삼촌 위천유가 규범을 볼 때마다 흑애한다. 규범 역시 삼촌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아버지보다 삼촌을 더욱 따른다.⁷⁵⁾

<명주기봉>에는 부모가 모두 함께 사는데도 부부가 서로 갈등하느라 아이를 방기하고, 그들 대신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돌보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홍린 화옥수 부부는 오랜 시간 갈등하며 서로에 대한 미움을 아들인 희몽에게까지 전가시킨다. 현홍린은 한창 걸음마를 익히고 말을 배워 어여쁘지 않은 것이 없을 희몽을 한번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고, 화옥수 역시 아이 둔 것을 수치스러워하며 곁에 두지 않으니, “유익 오직 숙당 조부모 가차함만 알고 평성 부모의 익이를 맞지 못”한다.⁷⁶⁾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지만 희몽 역시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는데, 현홍린의 형 현천린이 친자를 어색하게 대하는 동생을 회롱하며 희몽에게, “희몽아, 저거시 네 아비냐 아니냐?”하고 묻자, 희몽은 “남이 우리 부친이라 흐거니와 진실노 스랑하기는 빅부만치 못흐더이다.”하고, 어머니에 대한 질문에는 “유피 안하 드리면 쑤지즈시더 기다리지 아닌 거시 삼겨 일층 욱을 더으니 귀치 아닌지라 썰니 아스라 흐고 한번도 안하보시지 아니흐더이다.”라고 말한다.⁷⁷⁾ 현홍린 화옥수가 부부싸움을

73) <쌍천기봉> 권3, 75면.

74) <쌍천기봉> 권7 127~128면.

75) “총지[삼촌 위천유]의 흑이흐를 인하여 썩로기를 서후[부친 위천보]의 더오고, 총지의 이시를 보고 반겨 닛다라 광슈를 잡고 중부를 브르니” <명행정의록> 49권 36면.

76) <명주기봉> 24권 350면.

할 때면 공연히 희몽이 희생양이 되어 상처입고,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는 가족들은 희몽을 가여워하며 보살핀다. 희몽은 자신들의 문제로 자식을 방기한 부모 대신 조부모와 숙부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난다.

이처럼 한글장편소설에는 아동이 다양한 보살핌과 애착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확대가족으로 구성된 가문 안에서 아이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과 유대 관계를 맺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실제로도 조선사회 상층 가문에서는 아이 양육 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였고, 오늘날의 통념만큼 친모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 같지 않다. 유아기의 아이는 많은 시간 유모가 맡아 돌보았고, 학령기(學齡期) 남자아이의 교육은 남성 어른이 담당하는 일이 흔했다. 계모나 조부모, 이모 등 다른 가족들에 의해 아이가 양육되는 일 또한 드물지 않았다.⁷⁸⁾ 더욱이 조선후기 여성들은 20, 30대에 가임기에 해당하는 시기 많이 사망했다는 기록이나⁷⁹⁾ 여성 행장에 기록된 사망 원인의 압도적 1위가 출산 혹은 출산 후유증이라 사실을 고려해보면,⁸⁰⁾ 친모의 부재 상황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진 가문 안에서 아이는 친모 이외의 다양한 이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상층 가문의 현실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반영된 한글장편소설에도

77) <명주기봉> 24권 351면.

78) 서경희는 조선후기 남성지식인이 남긴 유모와 이모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대리모성, 유사 모성의 양상을 논의한 바 있다. 이문진, 유희춘 등의 양반 남성의 기록에는 아이 양육에 남성이 참여한 면면들이 나타나 있다. 한편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 중상류층 아동기를 연구한 김은희는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토대로, 대가족 속에서 아이는 유모, 친척, 조부모 등에게 많이 맡겨졌는데 아이들은 어머니와의 깊은 애착보다 친척이나 유모 등의 '남의 식구'들과 폭넓게 애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다음의 논문 참고. 서경희, 『조선후기 남성지식인의 유모 기록에 나타난 대리모성에 대한 인식』, 『한국고전어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어성문학학회, 2017; 서경희, 『조선 후기 이모에 대한 관계 인식과 감성-남성지식인 기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조윤경, 『조선중기 재지사족 가문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검토』, 『인문학연구』 38(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백혜리, 앞의 논문(2004): 문혜경, 앞의 논문; 최혜진, 앞의 논문; 조은숙, 앞의 논문(2014); 김은희, 『대가족 속의 아이들: 일제시대 중상류층의 아동기』, 『가족과문화』 19(3), 한국가족학회, 2007.

79) 백옥경, 『조선시대 출산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화사학연구』 34,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2007, 213면.

80) 김두열, 『행장류 자료를 통해 본 조선시대 양반의 출산과 인구변동』, 『경제사학』 52, 경제사학회, 2012, 9~10면.

그런 양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2. 아동의 취약성과 안전망

아동은 취약한 존재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양육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종속된 존재이기도 하다.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양육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된다. 살펴본 작품들에 그러한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는데, <엄씨효문청행록>의 엄영과 엄창은 자신의 욕망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입후자를 계후로 내세우려는 아버지의 독단적 결정과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어머니의 욕망에 휘말려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고, <유효공선행록>의 유연과 유우성, <보은기우록>의 위연청은 가장권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아버지들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 이 서사들은 모든 부모가 반드시 아이를 충분히, 혹은 적절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 양육의 문제를 가문 내의 문제로만 취급하며 전결권을 가장에게 맡긴 가부장제의 현실에서 아동이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엄씨효문청행록> 엄영의 경우 무력한 아동이라는 취약한 처지가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 효용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엄영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엄창 부부의 위기상황마다 힘써 돕는다. 그러나 아직 열 살도 안 된 어린 엄영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다.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 해도 효심 깊은 마음에 어머니의 악행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뿐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서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엄영이 엄창을 구하는 일이 곧잘 발생한다. 우선 엄영은 최씨가 엄창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엄창에게 폭로하여 그 위협성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형의 사랑은 거짓이니 따르지 말라는 최씨의 이간에 그 의도를 몰랐던 순진무구한 세살의 엄영은, 형의 품에 안겨 최씨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키며 근심하지 말라 말함으로써, 엄창이 최씨의 마음을 알게 한다. 이 일은 엄영이 무지하고 무력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엄영의 발언 자체가

어머니의 본심을 몰랐기에 천진하게 나온 것인데, 가족들 앞에서는 자애로운 양모로 가장하며 본심을 숨겼던 최씨가 엄영은 아무것도 모르며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여겼기에 경솔하게 이간의 말을 했던 것이다. 이후 최씨가 엄영에게 엄창을 해치려는 의중을 들켜 자 둘러대지 않고 솔직히 말한 것 역시 엄영이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어린아이인 데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어린아이의 시선을 경계하지 않고 무심히 취급했던 것이다.⁸¹⁾

이후에도 최씨는 악행할 때 엄영을 견제하지 않는다. 물론 친생자이기 때문에 감히 자신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악행을 막을 실질적인 힘도 지력도 권한도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다.⁸²⁾ 엄창 부부를 해치기 위해 최씨는 남성들이 출타한 틈을 타거나 남편과 그 동생에게 미혼단을 먹여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수를 쓴다. 자신을 막을 힘과 권력 있는 이들을 경계하여 미리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뒤 윤월화와 엄창에게 누명을 씌워 죄를 묻는다며 구타하거나 형부에 고발했던 것인데, 그럴 때마다 견제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엄영이 나서 엄창 부부를 돕는 바람에 최씨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한다.

이때 어린 엄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저항 도구는 최씨의 친생자라는 사실이다. 눈물을 흘리며 절절히 호소해봐도 전혀 설득되지 않던 최씨는, 엄창 부부를 장책할 때 엄영이 만류하며 섬뜩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스트레스에 혼절하자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한다. 최씨는 아들의 방해에 불열(不悅)하나, 피흘리는 모습에 놀라 눈물 흘리며 “충년 쇼인 병이 날가 두려흔 고로 노기를 저기 푸러 아즈를 위로흐며”⁸³⁾ 장책을 중단한다.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엄영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일을 진행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의 중심서사는 엄창이 양모의 악행에도 고통을 감내하며 효행

81) 한길연은 소설 속 아동들이 천진난만하기에 의도치 않게 사건을 폭로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논한 바 있다. 그런데 사건의 폭로나 매개는, 천진난만하다는 아동의 특징에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크게 의식하지 않는 어른들의 무심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한길연, 앞의 논문(2013), 46~55면.

82) 최씨는 이후 엄영이 자라나 점차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며 자신을 막아서면서부터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다.

83) <엄씨효문청행록> 13권 16~17면.

을 수행한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작 최씨가 마음을 돌이켜 개심하게 된 것은 업장의 효행 때문이 아니라 업영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악행이 밝혀진 뒤 별실에 갇힌 최씨는 업영이 남긴 이별서를 반복해 읽으면서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간 아들이 느낀 고통에 대해 성찰하면서 과거를 후회하며 점차 반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업영은 아동의 무력함과 취약성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러한 점들을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위기를 해소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물론 업영의 활약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갈등 대상이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시선과 저력을 무시한 여기는 어른들의 태도와, 그러한 까닭에 어른들의 이면을 포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정직한 시선과 반응이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유효공선행록>의 유연과 <보은기우록>의 위연청은 가부장의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훨씬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궁극적으로 자식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반대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상황, 더군다나 위협하는 존재가 공인된 생사여탈권자라는 상황은 아이에게 가장 위태로운 사태일 것이다. 더욱이 이 작품의 인물들은 효이념을 추수하기에 폭력적 상황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위연청의 경우 학대의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병리적 적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물론 위연청 역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그 심적외상이 그를 괴롭혔겠지만 그 고통에서 비교적 잘 회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학대에 노출된 시기가 준성인에 가까운 때였고, 그 이전에는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와 외숙의 안정적이고 애정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정서적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했던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내력,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에 반해 유연은 어린 시절부터 주요한 애착 대상인 아버지에게 소외와 폭행을 당하며 다른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도 매우 결여되어 있었기에 정서적 어려움이 지속되었다고 보인다.⁸⁴⁾ 물론 어

84) 똑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병리적 적응을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이전보다 적응적이고 기능적이게 되는

린 시절 안정 애착을 경험했다고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불안정 애착을 경험했다고 모두가 정서적 문제를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린 시절 형성된 불안정 애착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주변의 도움에 의해 극복될 수 있으며 안정 애착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의 애착은 성장 과정과 생애에 적잖은 역할을 하고, 불안정 애착은 성장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어려움의 위험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⁸⁵⁾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주목되는 점은, 위연청의 삶에 폭력적 가부장인 위지덕 이외, 위연청의 양육에 관심과 애정을 쏟은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찍이 양씨와 양거인이, 위지덕이 아버지로서 위연청에게 끼칠 위해를 걱정하며 분리시켰기에 그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양씨와 양거인이, 환경에 종속적이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데다 양육자를 선택할 수도 없는 아동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 것이다.

이로써 보면, 가장이 가족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조선시대 가부장제 구조에서, 아동의 성장환경에 있어 확대가족의 형태 혹은 친인척 간의 긴밀한 교류는 아동의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가부장제 하의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가장의 권한은 막대한데, 유정경이나 위지덕처럼 폭력적인 아버지를 두게 된다면 아이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양씨나 양거인과 같이 가장을 견제하는 가족들의 개입, 아버지와의 불안정 애착을 상쇄시킬 다른 애착 대상의 존재 유무는 아동에게 매우 소중하다. 오늘날의 애착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 부모와 힘든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에 안정 애착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대해 그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친척, 교사, 또래 등의 제2 애착인물에게서 안전의 자원(resources of security)을 획득했다는 점을 중요한 변인으로 삼는다.⁸⁶⁾ 부모자녀 간 일방적이고 수직적 질서가 강고할수록 그 일방성과 수직성에서 벗어나 정서적 소통을 하고 친밀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변인으로 가족기능성, 사회적지지, 부모애착 등이 제시된다. 김보라 외, 『DSM 진단기준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트라우마 경험과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6), 한국상담학회, 2018, 227면.

85) 데이비드 J. 윌린, 앞의 책, 27~46면.

86) 마리오 마론, 앞의 책, 88~89면.

한 유대를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아동이나 양육 과정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오늘날에야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실들이 오랜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 이미 선취되어 있기도 하는바, 한글장편소설의 아동 서사를 통해서도 그런 점들을 엿볼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아동의 애착과 성장 과정을 살펴 그것이 작품 안팎으로 갖는 의의를 탐구하였다. <엄씨효문청행록>의 엄영은 계후 갈등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적장자로 만들기 위해 계후자 엄창을 해치려는 친모로 인해 심각한 내적, 외적 갈등을 겪었다. 그는 친모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형 엄창을 도우며 우애와 가문의 평화를 지향했는데, 그것은 영유아기 때부터 엄창과 강한 애착이 형성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한편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에는 부모의 폭력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의 삶이 잘 그려져 있었다. <유효공선행록> 유연의 서사는 특히 문제적이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친에게 극심한 학대를 당하며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불안정 애착을 아들에게 대물림하여 아들을 정서적 파탄에 이르게 했다. 한편 <보은기우록>의 위연청 역시 부친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했는데 그는 유연과 달리 부정적 아버지를 극복하고 이상적 성인이 되었다. 이처럼 두 인물이 유사한 학대를 겪었음에도 성장 후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인 것은 그들이 어린 시절 다른 애착을 경험한 것과 관련된다 할 수 있었다. 유연은 유년 시절부터 부친과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상쇄할 만한 다른 인간관계도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한 반면, 위연청은 부친과의 관계에 고립되지 않았고, 어머니와 외숙의 애정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높은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느끼며 자랐다. 이처럼 아동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위연청은 정서적으로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했고, 그렇게 단단해진 그의 내력은 부친의 가혹한 학대에도 그를 버티게 한 것

이라 생각된다.

세 작품의 아동 서사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애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이와 긍정 애착을 형성하는 인물이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이 밖에 다른 한글장편소설에도 부모 이외 조부모, 삼촌 등 다양한 가문 구성원과 애착을 형성하는 아동이 등장했다. 조선시대 문헌기록을 참고해보면 실제로도 상층 가문에서는 아이 양육 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여전히 전통적 어머니상을 소환하며 친모의 존재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통념을 재고하게 한다. 한편 확대가족 혹은 다양한 친인적으로 이뤄진 가문의 구성원들은, 가장이 가족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조선시대 가부장제 구조에서 아동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생각된다. 수직적 질서가 강고할수록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친밀한 유대를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될 때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바, 한글장편소설에도 그런 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엄씨효문청행록> 낙선재본 30권 30책(최길용 교주, 『엄씨효문청행록』 1·2, 학고방, 2016)
- <유효공선행록> 서울대본 12권 12책(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5·16, 아세아문화사, 1980)
- <보은기우록> 한중연본 18권 18책(이화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보은기우록』 상·하, 이화여대출판부, 1975)
- <소현성록> 이대본 15권 15책(정선희 외 역, 『소현성록』 1~4, 소명출판, 2010)
- <쌍천기봉> 한중연본 18권 18책(장시광 역, 『팔찌의 인연 쌍천기봉』 1~9, 이담, 2017)
- <명행정의록> 한중연본 70권 70책(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명행정의록』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명주기봉> 24권 24책(문화재관리국, 『명주기봉』 상·하, 1978)
- <창선감의록>(이지영 역,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2021)
- 『양아록』(이문건, 이상주 역, 『양아록』, 태학사, 2000)

2. 단행본

-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소명출판, 2009.
- 양포이상택교수환력기념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상(上), 집문당, 1998.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 월린, 데이비드 J., 김진숙 외 역, 『애착과 심리치료』, 학지사, 2020.
- 마론, 마리오, 이민희 역,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시그마프레스, 2007.
- 이글, 모리스 N., 이지원·이성원 역, 『애착과 정신분석』, 학지사, 2020.
- 뒤비, 조르주 외, 김기림 역, 『사생활의 역사』 5, 새물결, 2006.
- 아리에스, 필립,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3. 논문

- 강혜선, 『조선후기 여성 대상 제문과 묘지명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국문학회』 13, 국문학연구, 2005, 57~82면.
-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9.

- 고은임, 『<쌍천기봉>에 나타난 양육 양상과 그 의미』, 『동서인문학』 61, 계명대 인문 과학연구소, 2021, 97~126면.
- _____, 『<유효공선행록>의 감정 표출 양상과 서술의식』, 『고소설연구』 52, 한국고소설학회, 2021, 109~148면.
- 김두열, 『행장류 자료를 통해 본 조선시대 양반의 출산과 인구변동』, 『경제사학』 52, 경제사학회, 2012, 3~27면.
- 김민정,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우울증 발현 과정과 그 의미』, 『동양문화연구』 28,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18, 133~163면.
- 김보라 외, 『DSM 진단기준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트라우마 경험과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6), 한국상담학회, 2018, 225~249면.
- 김서윤, 『<엄씨효문청행록>의 모자 관계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275~309면.
- 김세서리아, 『17세기 조선 유학의 미시 서사를 통한 가족 인식』, 『유교사상문화연구』 57, 한국유교학회, 2014, 169~192면.
- 김수연, 『조선후기 고소설 속 ‘아동 서사’의 문학적 장면과 사회적 의미—<창선감의록>과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5~38면.
- 김은희, 『대가족 속의 아이들: 일제시대 중상류층의 아동기』, 『가족과문화』 19(3), 한국가족학회, 2007, 1~30면.
- 김현철,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9.
- 김혜경,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논문, 1998.
- 문혜경, 『이문건 <양아록(養兒錄)>에 나타난 격대교육(隔代教育)의 교육적 의미』, 제주대 박사논문, 2018.
- 박상영,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망아초기제문>(亡兒初葬祭文)연구(研究)』, 『한문학논집』 41, 근역한문학회, 2015, 251~269면.
- 백옥경, 『조선시대 출산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화사학연구』 34,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2007, 193~220면.
- 백혜리,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7.
- _____, 『한국에서의 아동관 연구 동향과 과제』, 『교수논총』 14,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351~380면.
- _____, 『목재일기에 나타난 조선 중기 아동의 생활』, 『유아교육연구』 24, 한국유아교육학회, 2004, 63~101면.
- 서경희, 『조선후기 남성지식인의 유모 기록에 나타난 대리모성에 대한 인식』, 『한국고

- 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339~372면.
- 서경희, 『조선 후기 이모에 대한 관계 인식과 감성-남성지식인 기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42~171면.
- 심경호, 『진근대 시기의 아동관과 아동의 문학』, 『창비어린이』 5(4), 창작과비평사, 2007, 198~222면.
- 양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 문제』,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1998, 253~292면.
- 염원희, 『국문장편소설 인물들의 갈등과 화병, 치유의 문제』, 『한국민족문화』 7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29~56면.
- 윤경희, 『유인김씨 제문연구』, 『동양고전연구』 40, 동양고전학회, 2010, 143~168면.
-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1),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1, 162~184면.
- 이은경,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어머니의 양상과 의미』, 『개신어문연구』 21, 개신어문학회, 2004, 149~181면.
-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83~109면.
- 이지하,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데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137~168면.
- _____,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71~199면.
-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69~200면.
- 조윤경, 『조선중기 재지사족 가문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검토』, 『인문학연구』 38(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191~213면.
- 조은숙, 『양아록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4.
-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55~184면.
- _____,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 수행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연과정소저 부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41~175면.
- 최수현,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5.
- _____, 『<범문정충절연행록>의 유모 ‘일업’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7(1),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165~191면.
- 최윤희, 『<유효공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 한

- 국문학회, 2005, 189~209면.
- 최혜진, 『조선중기 사족의 아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 -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 탁원정, 『정신적 강박증과 육체의 지병-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1, 2016, 113~144면.
-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223~266면.
- _____, 『대하소설 속 ‘아동’의 서사문법적 역할과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41~83면.
- _____, 『생활문화사적 측면에서 본 대하소설 속 ‘아동’의 형상화와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269~313면.
- _____,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잘못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9, 국어국문학회, 2019, 269~303면.
- _____,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2)-<옥원재합기연>을 통해 본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42~169면.
- _____,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 연구(3)-잘못한 부모에 대응하는 자식의 태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2, 한국고소설학회, 2021, 65~107면.
- 홍현성, 『<보은기우록> 속 아버지 모습과 문제적 부성의 의미』, 『돈암어문학』 32, 돈암어문학회, 2017, 107~132면.

Children's Attachment Relationship in Korean Full-Length Novels
 - Focusing on *Eomsihyomuncheongrok*,
Yubyogongseonhaengrok, and *Boeungiurok* -

Ko, Eun-im

This study examined children's attachment and growth process depicted in Korean full-length novels and explored its significanc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work. With a focus on children aged under 15, the full-length novels *Eomsihyomuncheongrok*, *Yubyogongseonhaengrok*, and *Boeungiurok* were studied—in these, children's lives have been described relatively in detail and the problematic phases of growing up unfold in earnest. In *Eomsihyomuncheongrok*, amid a succession struggle, Eomyoung experiences serious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due to his biological mother who tries to make him the heir by harming Eomchang, who is older but adopted. Eomyoung does not cooperate in his mother's scheme and actively helps Eomchang, seeking brotherhood and peace in his family; this is because of Eomyoung's strong attachment with Eomchang since infancy. *Yubyogongseonhaengrok* and *Boeungiurok* depict the life of a child facing abuse at home. Yuyeon's narrative in *Yubyogongseonhaengrok* is particularly problematic—he is severely abused by his father from childhood and develops physical and mental problems; what is worse is that he ends up passing on this unstable attachment to his own son. Wiyeoncheong in *Boeungiurok* is also severely abused by his father. However, he overcomes his trauma and grows up into a stable and strong individual. As such, the reason that these two characters, despite suffering similar abuse, grow up to have different attitudes in life seems to be related to their different attachment experience during childhood. Wiyeoncheong who forms a stable attachment during childhood and experiences positive interactions grows up to be mentally healthy; it is his inner strength, which continues to develop, that helps him endure the abuse. The children's narratives in these three stories show that attachment is crucial for a child to grow up healthy and mature, and that the main figure with whom a child can form a positive

attachment is not limited to the parents. The Joseon Dynasty's literature record shows that various members of upper-class families participated in childrearing—this raises a question about the traditional image of mothers and makes us reconsider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continues to overemphasize the mother and her role. Meanwhile, it is assumed that the existence of various members within the extended fami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lleviating children's vulnerability in the Joseon Dynasty's patriarchal family structure, where the head of the family held his family's right to life or death. The stronger the vertical order, the safer and healthier children can grow when various relationships are formed for emotional communication and building of close bonds, and this is well illustrated in Korean full-length novels.

Keywords: *Eomsilyomundbeongrok*, *Yukhyogongseonbaengrok*, *Boeungjurok*, Korean full-length novels, children, attachment, child abuse

접수일자: 2022. 3. 31.

심사기간: 2022. 4. 1.~2022. 5. 10.

게재결정: 2022. 5. 10.

